

## 男·女 共學大學의 長點

李 銀 榮

(韓國外大 法學科)

### 男女 同席의 場

대학교육은 時代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 '男女七歲不同席'의 가치관이 온존하던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대학교육의 자리를 마련하였던 女子大學은 이제 그의 時代的 使命을 다하였다. 現代는 男女가 同席하여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는 시대이다. 남녀가 社會生活을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은 비단 여성에게만 새로운 일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예전에는 없던 생소한 점이다. 이제 男女共存의 時代에 접어들어으로써 대학은 과거에는 없던 또 하나의 과제를 부여 받게 되었다. 즉 남녀가 서로 이해함으로써 조화롭게 社會生活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男女共學을 통한 實習이 先行되어야 한다.

男女 共同生活의 경험은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모두 〚〓

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녀 분리의 중·고등학교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여서야 비로소 이성과의 공동 생활을 경험한다. 만약 대학에서조차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직장이나 기타의 社會生活에서 최초로 이성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 경우 그들은 전투 훈련 없이 전장에 내보내진 병사로 비유될 수 있다. 결국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여자대학의 여대생과 남녀공학의 여대생을 관찰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발견해 낼 수 있다. 먼저 外樣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옷 차림이나 행동거지의 차이도 있으나, 특히 남학생과의 대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여자대학의 여대생은 남학생을 대할 때 異性임을 강하게 느낀다. 즉 자기 대학의 여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긴장을 받는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것이 지나친 수줍음으로 나타나거나 무의식 중에 이성에 대한 동경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남녀공학의 여대생에게 있어서는 남학생과의 대면은 예사로운 일이다. 그 경우에는 남학생과의 대면이라는 사실은 별로 의식되지 않고 특정 남학생 누구와의 대면임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남학생 친구가 많으므로 각 남학생의 개성에 맞춰 또한 각자와의 관계에 상응하여 대응해 나간다.

둘째로 內面的인 差異도 크다. 남녀공학의 여대생이 비교적 自我意識이나 意志가 강하며 成就欲이 높다. 그 차이는 대학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했겠지만, 대학의 選擇過程에서 이미 분류되어졌다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이상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人間像에 가까운 쪽은 남녀공학의 여대생이다.

가정을 갖기 위해서 여성은

어울리는 남성을 만나야 하고, 그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여자대학을 다닐 경우 남성을 선택하는 안목이 부족하기 쉽고 교제의 범위가 좁아 선택 대상이 제한되기 쉽다. 반면에 남녀 공학을 통해서 남학생을 이성으로서만이 아닌 인간으로서 비교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남학생과의 학창 생활을 통해 남자물 이해하게 되고 자기와 조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러한 공학의 경험은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근래에 여성의 취업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제는 생산직이나 단순 사무직 외에 관리직·전문직에도 여성의 진출이 점증하고 있다. 현재 대졸 여성의 취업 요구가 매우 높다는 점, 산업 구조가 더 많은 전문 인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졸 여성의 직장 진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의 직장 진출에 있어서 남녀 공학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철한 職業觀, 원만한 對人關係, 우수한 作業能力 등 직장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요소를 남녀 공학대학에서 더 잘 갖추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 공학의 여학생들은 동창생과의 관계를 졸업 후에도 유지함으로써 직장인, 사회인으로서의 경험을 남년에 관계없이 폭 넓게 교환함으로써 자기 성장에 자극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아직도 일부의 직장에서는 용

모를 위주로 여성을 채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직장 풍토는 점차 능력 위주의 채용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남자에게도 대학 시절 여성 교우와의 공동 생활 경험은 그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풍요하게 한다. 남자 중·고등학교에서 이성과 단절된 생활을 함으로써 여성을 가족 외에는 가까이 알기가 어렵다. 대학 생활을 통해 배우자로서 적합한 여성의 선택, 아내에 대한 이해, 딸의 장래 교육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증대되는 여성 취업에 발 맞추어 여성 동료와의 공동 작업에도 무난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의 영원한 우정 관계는 남성의 對여성 의식에 좌우되므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관계가 이성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좀더 개방적인 인간 관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남녀 공학은 이상의 점에도 좋은 기초를 마련한다.

### 專門人力의 養成

대학은 專門人力의 養成所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자기의 적성에 맞게 전공 학과를 선택하여 그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성장한다. 그런데 男女共學은 研究 雰圍氣를 고양시킨다. 교육학 분야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녀 공학은 學習意慾을 促進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즉 남녀 학생은 表面上 反發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본디 마음에서는 서로 接近하려고 하기 때문에 共同作業에 즐겁게

참여한다고 한다. 그리고 남녀의 思考方式, 興味, 能力의 차이는 때로는 不和의 原因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親和力으로 인해 그러한 차이가 서로 刺戟을 줌으로써 오히려 學習活動은 더욱 폭 넓고 깊이가 있으며 同性集團에서 일어나기 쉬운 單調롭고 無關心하고 지루하기 쉬운 폐단을 없애 준다고 한다. 이 교육학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筆者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남학생만의 학급과 남학생과 여학생이 섞여 있는 학급을 비교할 때 수업 분위기가 다를 뿐 아니라 학습 평가 결과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남학생들은 여학생과 같이 있는 학급에서 학습 성취욕이 더욱 강해진다고 판단된다.

남녀 공학은 학생들간의 지나친 競爭心에 따른 挫折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同性集團에 있어서는 비록 學習上 協助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음 속에는 심각한 競爭心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결국에는 敗北의 劣等意識을 맛보는 결과로 된다고 한다. 그러나 異性間에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못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가 心理的으로 얼마든지 補償의 方法이 있으므로 그런 폐단이 적다고 한다. 대학 생활에 있어서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나 적당한 競爭心은 상호 發展에 도움을 주나, 지나친 경쟁심은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좌절의 상처를 남기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남녀 공존의 학

교 또는 사회는 적당한 자극을 주는 활력소와 지나친 경쟁을 피하는 완충제의 두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자대학에서는 어떠한가? 어떠한 전공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굳이 여자들만 따로 모일 필요가 있는가? 아니 오히려 여자들만 분리되어 있을 때 불리한 것은 아닌가? 그와 같이 생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의 연구는 우선 전문 지식의 습득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여자만의 울타리를 쌓는 것은 지식을 쌓아 가기 위한 공개된 경쟁을 회피하는 것이다. 더우기 전문 지식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울타리는 여성을 低水準에 묶어 두는 결과로 된다. 오히려 남성의 영역에 과감히 뛰어 들어 경쟁하고 자극받고 정보 교환하여야 할 이 때에 좁은 울타리 안에 안주하는 것은 전문인으로서의 성장을 기피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가능하다.

둘째, 학문의 연구는 전문 지식의 습득 외에 연구자의 교양, 경험, 가치관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학문은 지식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人間性의 基礎 위에서 연구되고 응용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특히 人文·社會科學 등에 있어서는 남성, 남성 사회,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흔히 여자 대학생들은 암기력 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으나 응용력 면에서 남자들보다 뒤진다고 이야기 된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의 한정된 경험, 교양 습득의 소홀, 다양한 관심의 부족, 교우 관계의 협소함 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될 수 있겠다. 이러한 弱點들은 남자의 세계에 뛰어 들으로써, 즉 男女共學의 과정을 통해 꽤 많이 극복될 수 있다.

세째, 대학 졸업 후에도 연구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스승이나 선배의 이끌어줌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여자대학에서는 이끌어 줄 스승이나 선배를 제한적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 특히 같은 분야의 선배의 빈곤은 연구 계통에의 진출을 어렵게 하며, 일단 진출한 후에도 고독과 침체에 빠지게 한다.(물론 출신 학교의 선배나 스승이 아니라도 본인의 노력으로 학문의 동반자를 찾을 수는 있다). 여성이 졸업 후에도 전문 인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녀 공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平等社會를 위한 大學教育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회는 平等社會이다. 이곳에서는 男女平等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男女平等에 있어

서 教育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男子大學들은 平等教育을 위해 大學의 門을 여성에게도 활짝 열었다. 그러나 오히려 여성들이 男女共學에 뛰어 들 응기를 갖지 못하여 여성들만의 대학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平等社會의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女性의 平等意識이 先行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성들이여! 이제 과감히 온실의 우리를 깨고 비바람치는 대지로 나서거라! 그리하여 남성과 어깨를 겨누고, 남성과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고 남성과 같은 과실을 얻음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자꾸나!

남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다. 남성들이여! 대학 시절의 여학생과의 교우 관계를 통해 여성을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유독 對女性觀에 있어서만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한 세대 전의 女性像, 그리고 자식에 대한 무조건 사랑의 희생적 母性像만을 떠올리지 말지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여대생의 꿈틀거리는 自我意識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등한 人間, 대등한 伴侶者, 대등한 同僚로서 대해 주기 바란다.

이상의 요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남녀 대학생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공부하는 남녀 공학대학이 적합하다. \*